

# 이야기를 통한 탐구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 AT 706 <손 없는 색시>를 대상으로

이지환\*\*

## 【 차례 】

- I. 서론
- II. 이야기를 통한 탐구
  1. 이야기 기호의 이해
  2. 이야기를 통한 탐구
- III. <손 없는 색시>의 실용주의적 해석
  1. 문답과정의 고안
  2. 실용주의적 해석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퍼스 기호학적으로 <손 없는 색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퍼스 실용주의 관점에서, 이야기기호에서 인물이 고난을 겪다가 평안에 도달하는 문답과정을, 어떤 사고이자 탐구로 보았다. 그리고 이야기기호들의 도상기호인 다이어그램을 통한 추론을, 일종의 이야기에 대한 숙고이자 이야기를 통한 탐구들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의 과정이나, 실용주의적 해석의 지침이나 적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나 탐구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이야기에, 퍼스의 관점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손 없는 색시> 유형의 설화들은 복합적인 문답과정과 다원적인 관계들을 보인다. 포괄적인 문답과정 하에 다양한 차이와 탐구 주체를 갖는 하위 문제나 임시 해결들이

\*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960)

\*\* 단독저자, 서강대학교 박사수료, [ljh11245@naver.com](mailto:ljh11245@naver.com).

제시된다. 그 문제상황들의 조건들과 인물의 행위 및 행위결과 등을 고려해서, 주된 서사요소들에 대한 실용주의적 의미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색시 개인의 심리와 성장 도식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문제 상황 속에서의 색시와 여러 인물들의 다원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활동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명하였다. 그리고 색시의 손의 의미에 관하여,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색시의 습관 및 행동과의 관계 하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색시를 보다 능동적이고 일관적인 탐구자로 볼 수 있었다.

열쇠어 : 기호학, 실용주의, 도해적 추론, 문답과정, 탐구로서의 이야기, 손 없는 색시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고 및 탐구의 성격을 갖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통한 탐구과정에 대해, 퍼스 기호학과 실용주의적 해석의 적절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손 없는 색시>(이하 <색시>) 이야기들을, Peirce<sup>1)</sup>의 실용주의와 기호학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기호학은 사고와 탐구과정에서 작용하는 기호들의 관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어떤 것에 대한 지성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한 다양한 효과와 행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2)</sup> 그래서 이야기의 사고와 탐구들, 이야기행위와 이야기의 효

1) 찰스 샌더스 퍼스의 전집은, CP는 권과 절(EP는 권과 쪽)으로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CP:2.273), (EP2:478)

Peirce, Charles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eds.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vols.1-6); Arthur W. Burks (vols.7-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

Peirce, Charles 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1893-1913), Peirce Edition Project (e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2) 퍼스는 ‘Six Characters of Critical Common-Sensism’에서 실용주의(Pragmatism)의 지침maxim을 논했다: “어떤 상징의 지성적 취지 전체는, 모든 가능한 다른 상황들과 욕망들을 조건부로 하여, 그 상징의 수용에 뒤따를 합리적 행위의 모든 일반적 양태들의 총합에 있다.”(CP:5.439) 퍼스에게 어떤 상징이 어떤 뜻을 정말로 가진다는 ‘믿음’은,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징들이 어떤 뜻을 가

과 등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실용주의적 관점은, 탐구나 숙고가 중요할 수도 있는 어떤 활동이나 장에 적합하다. 따라서 복합적인 문제제기와 해결, 새로운 습관의 필요와 재구성이 나타나는 <색시><sup>3)</sup>의 해석에 적합하다.

<색시>의 기존논의는 색시와 부친, 계모와의 관계, 혹은 색시의 심적 성장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색시>는 다양한 계열의 기호들의 복합적 관계가 나타난다. 실용주의는 복합적 관계들과 그 관계들에 대한 해석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여러 인물들이나 서사요소들과 색시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조명에 도움이 된다.

실용주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반성적 탐구과정의 지속과 발전을 중시한다. <색시>에서는 잠재적 위험이 문제적인 상황이 되고, 문제상황이 해결되는 과정(문답과정, 탐구과정)이, 세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 이 과정을 분석하면 <색시>의 탐구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탐구로서의 이야기를 실용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야기에 대한 탐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규범학문의 탐구과정에서, 이야기는 탐구과정의 연습이거나 탐구결과일 수 있고, 탐구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색시>의 반성적 탐구자들은, 문답과정에 문제제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위험, 문제, 답)을 바꾸거나, 문답과정 전체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해석자의 해석습관은, 어떤 문제상황에서 해결상황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

진다고 수용할 때, 그 뜻에 이어지는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들의 적합성은 어떤 상황과 목적에 조건적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행위들은 우선 가능하거나, 실제이거나, 법칙적이다. 혹은 과거, 현재, 미래(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고 행위, 활동 행위, 규범적 행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을 완화하면, 이 연구의 지침이 된다: 어떤 상징의 지성적인 의미를 이전보다 성장시키려면, 이전과는 어떤 측면(상황, 목적, 양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그 상징에 따른 행위, 행위 과정을 고찰한다. 그에 따라 행위 과정들의 총합을 증가시키고, 그 총합에 속한 행위의 합리성이나 일반성을 판단한다. 그 판단에 따라 행위 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일반화하여, 지성적 의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가능한 합리적인 일반적 행위 양태를 얻는다.

- 3) 김현선은 <색시>유형에 18개의 이야기가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에 대개본은 구연자와 채록년도를 표기한다. 다른 각편은, 책에 수록된 순서(한국1-18)를 표기한다. 김현선,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서, 2009.

거부하거나 승인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문답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해석자에게 고착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 습관의 유지나 재구성을 돕는다.

## II. 이야기를 통한 탐구

### 1. 이야기 기호의 이해

이야기를 기호로 보는 것은, 어떤 해석자<sup>4)</sup>와 대상-이야기-기호-해석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화자와 청자는 이야기기호의 해석자이다. 그리고 유사-해석자로서의 해석체는 해석과정을 매개하고 제어하는 해석행위의 대행자이다.<sup>5)</sup> 발화자는 일화기억, 이야기논리 등의 사고기호를 발화된 이야기기호(지향적 해석체<sup>6)</sup>)로 해석한다. 청자는 이야기

---

4) 퍼스는 웰비 여사에게 보낸 편지(december 23, 1908)에서 해석자를 언급한다. “나는 자신의 대상에 의해서 상당히 결정되는 어떤 것이든 기호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한 사람에의 효과인 해석체를 상당히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는 전자에 의하여 중개적으로 결정됩니다. ‘한 사람에의’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케르베로스에게 주는 뇌물sop입니다. 나의 광범위한 개념을 이해시킨다는 바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p.29)

이 ‘광범위한 개념’은, 해석자와 해석체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퍼스는 범심론적 연결주의자synechist이다. 그리고 정신은 기호의 성장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다른 정신들의 기호를 성장시킬 정신이자, 다른 정신들에서 성장할 기호이다.

Peirce, Charles, S, *Charles S. Peirce's Letters to Lady Welby*, Irwin C. Lieb ed., New Haven: Whitlock's Inc, 1953.

- 5) 해석과정 중에 있는 해석자의 정신은, 해석행위에 한해서는 해석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질을 공유한다. 또는, 양자가 강력한 영향관계 속에 있거나, 동일한 규칙이나 습관 하에서 제어되거나 자기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과정 중에 해석체와 해석자의 기능 및 실체의 유의미한 구분은 어렵다. 퍼스는 ‘Some consequences of four incapacities’에서 인간은 기호라고 말한다(CP:5.314). 일관성consistency이 사물의 지성적 성질이듯이, 어떤 인간기호의 정체성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일관성으로 이루어진다.(CP:5.315)
- 6) “지향적intentional 해석체는 발화자의 정신의 결정이다; 효과적effectual 해석체는 해석자의 정신의 결정이다; 소통적communicational 해석체, 혹은 Cominterpretant는 해석자와 발화자의 정신들의 융합체인 정신의 결정이다. 그 융합은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 질서order 안에서 일어난다.”(EP2:478)

기호를 해석(역동적 해석체)한다. 탐구자는 이야기를 탐구하여, 느낌, 사고, 행위, 논증(논리적 해석체)등을 얻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탐구결과에 대한 숙고과정에서 해석습관을 재구성한다.

이야기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은, 탐구할 대상과 기호와 해석체의 관계를 규정해야한다. 우선, 이 연구는 발화된 이야기기호들에 대해서, 다이어그램기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즉, 그 기호들에 포함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사건과 세계의 양상 및 조건을 구상하여, 그것에서 가능한 관계의 변형을 고찰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넘어, 관련된 이야기들(이미지기호로서의 이야기)의 집합에서 공유되는 어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다. 즉, 세계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기호들(포괄적인 이미지)은, 다이어그램이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의 관계들(물리, 사회, 심신)을 포함한다.<sup>8)</sup>그러므로 이야기에 대해

- 
- 7) 해석체는 “그것은 정신적 효과이자, 사고이다.”(CP:1.564) 이러한 해석체는 정신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미칠 때 역동적dynamic 해석체라고 부른다. 이는 감정적 해석체, 활력적 해석체, 논리적 해석체로 구분된다. 감정적emotional 해석체는 기호가 일으키는 감정적인 효과이다. 이러한 감정적 해석체는 더 나아가 노력을 수반하는 개별 물리적, 정신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활력적energetic 해석체이다.(CP:5.575) 논리적 해석체는 상대적으로 미래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사고이다.(CP:5.481-2) 이러한 감정은 행동으로,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진다. 이 이어짐은 개념이 된다. 즉, 논리적 해석체의 본질은 일종의 습관이다.(CP:5.486)
- 8) 다이어그램 기호는, 대상의 부분들의 관계가, 기호의 부분들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다.(CP:2.282) 이 관계의 유사성에 의하여 다이어그램 기호는 조작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윤희는 다이어그램 기호와 문학의 알레고리의 성격을 잘 밝히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1차성이지만 어떤 상황이나 측면에 따라, 첫째, 감각적 경험과 연관된 단순한 자질로서의 이미지, 둘째, 관계적 이미지에 집중하며, 재현된 대상을 추론하는 이미지의 구조로서의 다이어그램, 셋째, 그러한 이미지의 구조를 새로운 다이어그램으로 기술 혹은 번역하는 개념적 이미지의 은유로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알레고리도 어떤 측면이나 상황인가에 따라 세 가지의 모드로 존재한다. 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알레고리 이미지, 내러티브 알레고리의 구조를 통해 재현된 대상을 추론하고 비평하는 인지적 도구, 그리고 재현된 대상의 의미를 찾는 과정인 알레고리의 해석이 그것이다.(110~111쪽)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야기의 포괄적인 해석과정에 포함된 다이어그램적 추론은, 지속적인 해석과정 속에서 다이어그램의 부분들의 관계나, 다루고 있는 다이어그

서 상상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가능한 관계의 변화나 행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연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과, 그 문제가 어떤 변화에 의하여 부분적,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포함할 때,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개연적 추론을 포함한다. 그러한 이야기는 어떤 사고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의 관계는 사고들의 가능한 관계를 포함한다. 이 사고들을 구성, 분석, 판단하고, 사고들의 관계를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속고이다. 이 속고는 그 자체로 규범과학적인 탐구이며, 이 탐구의 결과에 의하여 해석습관의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야기를 통한 탐구과정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발화된 이야기기호에 대한 추론을 통해 논증기호를 얻으려 하며, 이야기기호에서 제기된 문답과정들에 다양한 양태로 연관된 행위 및 습관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이야기의 의미를 실용주의적으로 해석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기호가 다른 사고기호나 연관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야기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사고들의 관계의 구성 및 판단으로서의 속고는, 그에 적합한 새로운 행위의 시도와 습관의 재구성에 의하여, 의미를 얻는다. 속고는 어떤 불안정성의 양태를 갖는 어떤 일반적 상황에 문제제기하여 새로운 상황에 도달하려하거나,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행위 및 습관을 찾는 탐구이다.

<색시>의 맥락에서, 속고는 친족관계에 계모의 도입이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의 출산, 무력한 상황에서 추방 등의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상황과 믿음, 행위, 습관 등을 알기 위한 것이다. 혹은 사물들, 사회관계, 습관, 신체상태 등을 변화시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알아낸

---

램 자체를 변형한다. 따라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들도 해석 과정에서 변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에 포함된 다이어그램들의 관계도 변화한다.

이윤희, 「퍼스의 다이어그램과 내러티브 알레고리의 매체상호성」, 『말과 그림사이-다이어그램의 상호매체성』, 세미오시스연구센터, HUIINE, 2018.

다. 심지어 어떤 탐구를 문제상황에 대한 초월적 해결을 통해 종결지은 뒤, 다른 문제의 탐구로 진행하려는 것도 가능하다. 초월적 해결 뒤에 다른 문제상황이 다른 인물에게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색시>에서 남편이 과거 급제를 포기하고 색시를 찾아다니는 상황이 잘 보여준다. 그것은 남편에게 색시와 아이가 갖는 의미의 문제에 대하여, 남편의 활동에 의해 해석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이야기의 탐구과정들의 관계의 고찰에서 얻어지는 숙고의 의미는, 후행할 해석체(논리, 습관, 활동 등)들이 어떤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보므로써, 그 폭과 깊이가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이야기의 기호작용 과정을 해석자의 사고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겠다. 처음 해석할 때의 이야기기호는, 자기의 해석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기호이며, 관련있는 언어의 전반이 제공하는 기호의 기초적인 정의(자질, 특성, 뜻)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미를 해석자가 성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기호이다. 혹은 우리가 상기 언급한 자질을 갖는 시도나 지속적인 해석행위를 이야기기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기호이다. 즉, 초기 해석에서 이야기기호는 레마적 rhematic 상징기호들이다.<sup>9)</sup> 그 기호에서 출발하여, 가능성들과 상징들을

---

9) 이야기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기호가 해석에 미치는 효과, 혹은 기호해석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기호의 어떤 측면이다. 기호를 해석능력에 따라 구분하면, 레마 Rheme, 다이센트Dicent, 논증Argument로 나뉜다. 기호의 해석능력이란 “대상의 해석에 있어서 기호의 해석체가 특정한 초점을 지향하도록 지시하거나 한정하는 기호의 능력이다.”(James Jakób Liszka, 103쪽) 각각 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단어, 단항), 사실을 나타내는 것(명제, 서술), 논리를 나타내는 것(논증, 추론)이다. 레마는 “해석체가, 기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실존적이거나 법칙 같은 속성에 집중하기보다는, 기호의 질적인 특성에 집중하도록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103쪽) 리즈카는 부연설명한다:

림(theme)의 불명확성 때문에 그것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주장하거나(약간 제공하기는 하더라도;CP2.250),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단지 특성들만을 그렇게 드러낼 뿐이다. 림 때문에, 그 해석은 그것의 지시대상 곧 외연이나 넓이보다는 기호의 의미 곧 내포나 깊이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리라고 말할 수 있다. 림에는 넓이의 불명확성이 있어서(CP4.543) 그 대상이 지극히 막연하다

주목하면서 기호해석을 진행하여, 그 이야기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보충, 변형, 재구성한다. 이러한 진행이 일반적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야기기호는 그 자질이나 그 상징에 대한 해석습관들이 대상의 구성이나 재구성을 유발하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면, 이야기의 이미지들, 단어들의 감각, 해석 과정의 다양한 심미적 느낌들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목적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현상을 관조하는 태도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느낌의 흐름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이야기의 레마적 상징들은 다음의 인지를 위한 요소들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어떤 가능성이나 우연성을 사고에 도입하는 통로로서, 의미를 깊게 확장시켜 주게 된다.

우리는 이야기기호에 내재하는 가능성들을 실현시켜, 서술하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자신의 부분들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해석자에게 어떤 세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재현하는 기호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즉, 이야기는 어떤 도상기호인데, 이미지나 은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신 혹은 자신의 부분과 유사한 자질을 가진 세계, 사건, 삶, 이야기, 사회, 관계들 등에 대한 다이어그램 기호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

---

(CP4.539). 하지만 비록 기호의 깊이를 향한 자극이 있어도, 모든 림에는 넓이와 관련된 해석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cf.CP 2.341). 하지만 넓이는 실제적인 것 이라기보다 가능성이거나 상상력의 결과물이다(CP2.250, 2.341) 림은 그것의 깊이가 넓이를 추구하는 기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대상과 더 한층 강력한 그것의 해석체가 되게 한다”(CP2.95)(104~105쪽)

이러한 성격에 따라, 레마로서의 이야기기호를 해석할 때, 이야기기호의 자질의 일반성(더 큰 넓이의 가능성)과 불확정성은, 실제 사건이나 사실과의 대응에 주목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및 기호들과 유사성을 갖도록 하며, 계속해서 그것의 외적 성장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야기기호들의 자질에 대한 주목과 고찰은, 이야기기호를 깊어지게 하여 더 풍부하고 잘 조직된 의미가 갖는 미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여기서 기호의 넓이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들을 말하고, 기호의 깊이는 기호에 대한 서술, 기호의 정의, 자질, 특성 등을 말한다. 넓이와 깊이는 기호를 통해 협동적으로 상호발전하며, 정보나 지식 등이 증가하고 개선되는 두 방향이다. 제임스 야콥 리츨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96~108쪽 참고.

기의 이해나 해석은, 그것들의 부분들이 갖는 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호들로 실험적으로 연결해보는 기호작용, 특히 다이어그램적 추론을 유발한다. 그에 따라 이야기기호에서 명제들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고, 대상들과의 관계들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한 명제기호들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기호들과 대상들의 관계에 대한 사고활동, 삶의 경험은 이야기기호의 도상기호들이 맺는 관계들과 유사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일단 유사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대상들을 지표기호로서 재현하는 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러한 가설적 추리들이 적절하다면, 서술기호dicent이고 지표기호로서의 이야기기호는, 다양한 양태의 어떤 삶과 역사의 일부를 한정적으로 가리키거나, 그것들에 영향 받아 생겨나거나, 그것들을 일으킨 이야기로서 탐구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야기의 탐구자는, 의미의 깊이가 있지만 지시하는 대상이 모호했던 이야기를, 한정된 대상의 넓이 속에서 재해석한다.

이야기는 구분된 삶의 흐름을 일정한 습관이나 규범에 따라 연결지은 결과물이다. 이야기기호로 표현된 삶의 요소들이나 관계들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탐구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의 삶은 이미 반성된 지성적 사고의 결과물의 성격을 포함하며, 다른 언어 및 사유의 습관, 인지적 경험들, 그리고 실제에 대한 경험들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한 활동들과 관련된 명확한 어떤 이해를 원할 수 있다. 실용주의적 해석 단계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과 해석습관을 성취한다. 어떤 이야기의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설명하고, 그 설명을 평가하는 추론이다. 나아가 레마로서 의미심장했던 기호(기호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서술기호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논리적 관계를 발전시키려한다. 그래서 주목한 이야기기호에 대하여 성장한 지성적 의미(진정으로 넓고 깊은 기호)를 추후에 얻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이 선불리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해석경로가 해석자의 탐색과 반성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판단된다. 그것은 이야기

를 통한 탐구를 반성적으로 숙고하는 노력이다. 즉,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성장시킬 해석습관을 얻으려는 자기제어이다.

## 2. 이야기를 통한 탐구

이야기의 실용주의적 해석은 현상학, 미학(시학), 윤리학, 논리학적 탐구들의 연관성<sup>10)</sup>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이야기 속 문제상황(공감)의 윤리적 해결, 논리적 판단을 고찰하는 것에서 일어난다. 이야기를 통해 공감적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에서 제시된 것들의 자질을 이해하여, 경험 속에서의 관계들과 가치배열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사고와 활동들의 재조정, 재구성을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이야기의 인물에 몰입하여 그 인물이 봉착한 문제를 고뇌하고, 해결을 갈망하고 시도한다. 그리고 문제에 문제제기하고 문제를 변환하고 새로운 해석과 활동을 시도한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이야기탐구의 연관관은, 어떤 삶에 대한 아이디어(혹은 삶에 대한 도상기호의 생성지침)에 따라 상상한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윤리와 논리를 성장시키고, 그것들에 따른 활동의 효과를 고찰하는 숙고이다.

숙고의 과정에서 탐구를 요청하는 어떤 상황과 기호작용에 의한 탐구의 시작은 중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믿음이나 습관이 필요한 문제적 상황이거나, 기존의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아 다른 설명이 필요한 어떤 놀랍고 흥미로운 상황일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을, 놀랍거나 문제적인 상황(설명, 탐구가 필요한 상황)과, 익숙하고 평안한 상황으로 나누고, 그 관계에 새로운 해석습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문제적인

---

10) “미학은 지선들의 과학이거나 어떤 숨은 이유 없이 객관적으로 감탄할만한 것의 과학이다. 나는 이 과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것은 현상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윤리학, 혹은 옹고 그림의 과학은 최고선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미학들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 그것은 자아-통제된, 혹은 의도된 수행의 이론이다. 논리학은 자아-통제된, 혹은 의도된 사고의 이론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 그것의 원리들을 윤리학에 간청해야 한다.”(CP:1.191)

상황은 주로 일종의 결여나 과한 욕망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문제적인 상황은 어떤 두 명제 혹은 관념의 분리나 모순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 인식에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일종의 ‘의심’ 상태이다. ‘의심’은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의미들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이다.<sup>11)</sup> ‘의심’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상황은, 해결을 위한 관념을 만들거나 찾아내는 탐구를 요청한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성은 논리적 분석이나 관습적 제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들을 탐구하는 실제적인 강도intensity는, 살아있는 탐구자에서 이야기와 관련하여 작용하는 ‘심리적 효과’들에 달려있다.<sup>12)</sup>

11) 퍼스의 믿음과 의심 개념은 ‘fixation of belief’에서 제기되었다. “믿는다는 느낌은, 우리의 활동들을 결정할 어떤 습관이, 우리의 성질 안에 확립되어 있다는, 다소간 확실한 지표이다. 의심은 그러한 효과를 절대 갖지 않는다.”(CP:5.371) “의심은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풀려나 믿음의 상태로 가려고 투쟁한다. 반면에 믿음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어떤 믿음(무엇에 대한 것이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CP:5.372) 의심은 “모순되는 두 명제들에 대한 불만족”의 느낌인데, 이는 믿음의 확립을 유도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어떤 명제가 표상하는 어떤 하나의 것이 있다는, 어렵פות한 용인vague concession이 있다.”(CP:5.384).

12) 퍼스는 ‘How to make our idea clear’에서 의심과 믿음 개념을 더 논의한다. 믿음을 산출하려고 하는 사고작용에서 의심이나 호기심 등의 강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러한 종류의 마음상태의 효과에 의하여 탐구하는 사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물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혹은 어떤 진정하거나 지어낸 망설임(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이나 사고와 활동의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익숙한 습관이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 행동해야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 규칙을 위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확립하려는 정신적 활동이 자극받고 있는 상태이다.(CP:5.394)

지어낸 망설임feigned hesitancy은, 고상한 목적에서든, 단지 재미를 위해서 지어낸 것이든, 과학적 탐구의 생성에서 대단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의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신이, 미력하거나 강력하게, 혹은 차분하거나 거칠게 활동하도록 고무한다. 이미지들은 의식을 빠르게 지나간다,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전까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한다—순식간에, 한 시간 안에, 혹은 오랜 해가 지나고서—우리를 망설이게 했던 그런 상황들과 같은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결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을 획득하였다.(CP:5.394) 믿음은, 우리의 성질에서의 행동 규칙을 확립하는 것에, 혹은 줄여 말하자면, 습관을 확립하는 것에 관여한다. 믿음은, 사고의 동인인 의심의 흥분을 진정시킨다. 사

처음의 이야기 기호들은 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적 기호, 혹은 무지無智의 기호를 포함한다. 그리고 실제의 측면에서, 불만족, 고통, 고뇌를 제시한다. 그 문제적 기호들의 영향으로, 해결하는 기호를 얻으려 하게 된다. 즉, 해결하고 설명하는 기호관계나, 그 관계들을 얻는 해석습관을 얻으려 하게 된다.<sup>13)</sup> 탐구자는 그러한 사고활동의 결과로서 어떤 가설적

---

고는 진정되고, 믿음에 도달하는 순간에 멈춘다. 그러나 믿음이 행동을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은 그 다음의 의심과 사고에 관여한다. 그것은 종착점인 동시에 사고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때문에 나는 사고가 본질적으로 활동임에도, 믿음을 휴식중인 사고라고 부른다. 사고하기의 귀결은 결단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고의 귀결은 더 이상 자신의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성질에 대해 사고가 끼친 효과인, 믿음은 정신적 활동의 경기장일 뿐이며, 그것은 미래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CP:5.397)

인물에게 편안하거나 익숙한 상황과 고민없는 활동들, 혹은 해석자가 이해하거나 만족하는 기호는, 어떤 익숙한 믿음이나 습관이 적용되는 상태이며, 사고가 휴식할 수 있는 즐거운 기호들이다. 그리고 인물이 고통스럽고 고뇌하는 것, 혹은 우리가 불만족하거나 난해한 기호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의 사고를 활동시키는 기호들이다. 그러면 이야기기호는 우리의 믿음과 습관을 알아차리게 하고, 재구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13) 시모어 채트먼은, 플롯을 해결solution과 폭로revelation으로 나눈다. 폭로의 플롯은:

질문에 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질문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미리 우리는 사물들이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있게 되리라는 것에 집중한다. 그것은 사건들이(행복하게 또는 비극적으로)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해결의 플롯에서 전개는 해결이며, 폭로의 플롯에서는 노출인 것이다.(55쪽)

그런데 어떤 이야기 전체나 부분을 문제제기나 문제해결로 보는 것은, 해석자나 상식과의 관계를 고찰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 문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는, 그저 현상이며, 해결이다. 폭로 플롯이 문제적으로 보인다면, 그 플롯은 문제이거나 문제제기이다. 그러므로 두 플롯은 모두 문답과정에 대한 전체적, 부분적 다이어그램이다. 어떤 이야기기호를, 문답과정이나 문제나 해결로 해석했다면, 해석자는 이야기기호를 탐구의 부분이나 탐구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문제성을 보게 되며, 탐구하겠다는 마음이 들며, 그에 대한 답을 발견하거나 만들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해석체(의심, 호기심, 심장深長가능성)-해결 해석체(믿음, 만족과 활용)-탐구 해석체의 구분이 가능하다. 문제 해석체는, 지향적 해석체일 때 문제제기이며, 효과적일 때 탐구가 시행되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해결 해석체는 지향적일 때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이고, 소통적일 때 탐구공동체의 역동적이거나 최종적인 해석체이다. 해결 해석체가 효과적일 때, 문제 해석체의 작용은 중지하고, 여러 정신적 효과가 수반되고, 활력적 효과들로 이어진다. 탐구 해석체는 어떤 기호, 혹은 기호작용 등

설명들을 얻고, 다시 기호들에 적용하여, 의미망을 재조직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호들은 다양한 경로로 실제적, 지성적 관계를 갖는 기호로 발전한다. 그 전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창조적인 논리적 과정이다.

결말이 있는 이야기기호는, 어떤 추론들이나 그 추론들에 대한 의심이나 반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말이 없더라도, 이야기기호의 하위기호들에는 추론가능한 관계들이 있다. 이야기는 가설적 추론을 포함한 지성적 활동의 창조적, 확장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유희적 명상에서부터 진지한 결단을 위한 숙고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능성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기, 그 이야기들의 과정을 경험 및 관찰하기,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믿고 실천할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먼저 발화하는 탐구자의 입장(혹은 이야기생성자의 가상위치)에서 탐구활동의 경로를 상정해보자. 이야기의 생성은 이야기의 시작조건(구체적 조건과 세계 법칙)과 진행경로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개연적, 필연적 결말에 도달한다면, 연역적일 수 있다. 그때 구술자는 다이어그램이 활용되는 연역적(발견법적) 추론에 의해 인도되었거나, 연역적 추론을 제시한다. 구술자는 그러한 문제제기와 해결 등으로, 논리상으로나 서술상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 것들에 잠재되어있던 가능성들을 명시적으로 구현하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구술자의 사고는 습관이나 법칙에 따르고 있다.

구술자는 놀랍고, 의미심장하고,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연적이거나, 흥미롭거나 유용하거나 만족스러운 결말 등을 제시하려 할 수 있다. 구술자가, 어떠한 설명가능성에 의해 어떤 결말로 인도될 수 있다. 그는 가설적 추론에 의하여 인도되거나, 가설적 추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구술자는 이야기 세계의 법칙, 혹은 법칙에 대한 기호들을 발제하고 있다.

---

을 탐구로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답구조나 문답과정을 어떤 탐구로서 검토, 보충, 재구성하게 한다. 이것은 탐구공동체가 연결되게 하는 베어링bearing이며, 탐구에 관한 사고나 철학들, 특히 실용주의나 과학 철학 등이 포함된다.

시모어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0, 55쪽.

구술자가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에 대하여 그 이야기로 압축하여 나타내거나, 그 이야기와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어, 관련된 어떤 논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면, 귀납이다. 이처럼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세계나 규범에 대하여 종합적 탐구를 할 수 있다.

청자의 추론과정에서, 이야기는 어떠한 사례로서 그 자체로 어떠한 경탄과 만족을 제공한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에, 청자는 구술된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간 어떤 해석체의 생산으로 인도된다.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미지를 상상하고, 설명을 부과하여 이해하고, 다른 의미를 해석한다. 이제 이야기기호에 대하여, 어떤 가설적인 해석습관을 적용하며, 새로운 연관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세계정보와 사건정보를 생성 및 조정한다. 이야기기호와 인과적, 인접적 관계(구술자의 자아, 발화행위와 연관된 신체, 역사, 사회적 조건)를 갖는 것들을 찾는다. 이야기기호 자체에 적용되는 설명이나, 이야기기호의 부분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설명(이야기 기호를 성장시키는)을 발제한다. 이러한 탐구과정 전반의 핵심추론작용은 가설적 추리이다. 그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사례에 적합한 일반적 원리나 규범을 가설적으로 자기-발제한다. 그 가설로, 이야기의 문제적인 부분에 답하거나, 이야기의 추론에 문제제기한다.

다양한 기호체계를 수반하는 이론적 해석들은, 이야기기호나 기호체계를 활용한 실험이며, 새로운 해석들을 생성하는 탐구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상동적인 다이어그램 기호만을 초점으로 하여, 대상기호체계와 부가기호체계에서 작용가능한 모든 기호들을 연결하려는 것은, 해석의 초기조건인 대상(텍스트)의 자질(새로운 해석가능성을 갖는 기호들)을 상당히 소실하거나, 부가기호체계의 일부를 재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뿐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야기의 다이어그램을 파악하고, 변형시키고, 조정하여, 기호들의 관계를 새로 얻거나, 특정 조건에서 유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함축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어떤 방침, 방법, 의미망 등의 재구성)을 제공한다.

이야기의 담화들과 다이어그램은, 해석과정에서 새로운 윤리적, 논리적인 명제들의 생산을 돕는 매개체, 혹은 기존의 명제의 적용을 방해하는 매개체(촉매觸媒)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의 행위자의,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수용자의, 느낌, 감정, 정서들은 이야기의 의미와 주제에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기호작용의 주요 기능요소(원인, 매개체, 목적)로서 작용한다. 이야기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혹은 문제의식, 그리고 반성을 유도하는 지점들을 제공한다. 우리가 그 해결에 불만족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질 경우, 탐구가 시작된다.<sup>14)</sup> 그것은 삶과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종합적 탐구의 일종이다. 이야기는 여러 삶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한 탐구이자, 학습과 자아형성을 위한 사회적 실재의 기호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탐구들은 다른 자아와 세계에 대해 마주치게 하며, 탐구자에게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반성적 탐구자는 탐구과정 자체를 이해하여 해석습관을 재구성하며, 스스로의 탐구과정을 새로운 가치, 목적, 의미들로 인도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은 이야기의 해석들이 추론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의미들과 의미들의 관계들이 가진 현상적, 재현적, 해석적 성격

---

14) 인물(내적 탐구자)이나, 구연자와 청자(이야기를 통한 탐구자) 각각은, 인물이나 자신, 그리고 다른 탐구자의 각 상태나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만족이 다르거나 변화할 수 있다. 즉 어떤 것이 문제적인지는 사고와 자아들의 관계에 따라 상대적이다. 연결주의(synechism)에 관한 퍼스의 언급을 보자:

당신과 유사한 상황들 하에 있고 당신과 닮은 모든 사람은, 다소간, 당신이다, 비록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인 정도로 같지는 않을지라도.(CP:7.571) 정신에서 정신으로의 모든 소통은 존재의 연속성을 통한다. 어떤 사람은 창조자의 드라마에서 그에게 할당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한 그는 그 역할 안에서 자기를 잃는다—일마나 겸손할 지와는 상관없이—그는 그것의 창조자와 그 자신을 어느 정도 동일시 할 것이다.(CP:7.572)

다른 정신에 상호작용하는 정신으로서의 이야기 탐구자는, 인물이나 다른 이야기 탐구자가 만족하는 어떤 상태에 대한 동기화의 정도(존재의 연결성)가 다양하게 차이가 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이 동기화되는 정도(동화율)는, 타자의 만족에 공감하는 정도나, 타자의 만족에 대한 불만족에 효과를 미치며, 이에 따라 제기된 문제 자체에 문제제기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통한 실용주의적 탐구의 주요인이다.

이나 위치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의 추상적, 보편적 논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이 가진 가능성과 관계와 법칙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석들이 어떤 해석습관에 기반하는 것인지, 사고의 범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론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게 되므로, 기존의 습관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즉, 그 습관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습관들을 획득할 수 있다.

### Ⅲ. 〈손 없는 색시〉의 실용주의적 해석

#### 1. 문답과정의 고안

<색시>에서 인물-탐구자들이 어떤 문제적인 상황과 관계들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문답과정)을 고안해보겠다. 이는 여러 계열에 속한 기호들의 연결성을 고찰하는 것을 넘어, 그것에 대한 인물 및 해석자의 관점과 해석활동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인물-탐구자는, 어떤 탐구상황(문제적 상황->실현 상황->해결상황)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호들의 관계망을 통과한다. 이 과정들에서 태도 및 사고의 변화와 활력적인 작위(作為)들을 포착하는 도안은, 그 속에서 해석자가 다양한 행위의 가능한 양태들을 숙고하기 위한 기반이다. 즉, 골자가 되는 관계를 명시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조정을 하면서 결과를 검토하여, 논리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다이어그램적 추론이다.<sup>15)</sup>

15) 퍼스가 ‘Prolegomena to an apology for pragmatism’에서 말하듯이, 사고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을 설명하려는 실용주의의 핵심에는 다이어그램적 추론이 있다. “어떤 이는, 동형의 다이어그램(diagram)들에 정밀한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의도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은 변화에 대한 선명한 조망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한 조망에서, 다이어그램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의 상호관계들이 도출된다.”(CP:4.530) 의 도되거나 예상되지 않았다는 말이, 이야기 기호작용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하다. 다이어그램적 추론은 대상의 골자인 관계의 형식(다이어그램)을 실험함(외부적, 상상적)으로써, 관계들의 자연에 질문하는 것이다.(CP:4.530) <색시>의 다이어그램의

어떤 분리나 상충이 발생하는 기호들의 계열들과, 문제가 잠재적인 상황, 실현된 상황(문제상황), 해결된 상황들을 연결하여, 인물-탐구자의 일반적인 탐구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잠재상황은 어떤 문제가 문제적인 자질을 갖거나 문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물이나 해석자는 불안할 것이다. 실현상황은, 인물이나 해석자에게 문제가 일어났고, 상황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칙이나 습관을 의심하며, 이후 할 행동이나 해석을 모르거나, 망설이고 있다. 해결상황은, 문제상황이 잠재상황으로 다시 퇴보한 해소상황과, 문제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한 상황으로 나뉜다. 이 상황에서 인물이나 해석자는 만족하는 상태이며, 어떤 창안되거나 재구성된 믿음이나 습관에 따르며, 이후 할 행동이나 해석을 알고, 결행한다. <색시>의 주된 문제적인 상황들을 규정하고 살펴보자:

문제상황1 잠재 - 색시에게 비우호적인 계모가 등장하여, 색시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실현 - 계모의 모함에 따라 아버지가 색시의 손을 자르고 추방한다.

해결 - 방황하다가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남편과 결혼한다.

문제상황2 잠재 - 남편이 과거를 보러가고, 남편과 색시가 분리된다.

실현 - 계모의 모함에 의해 시어머니가 색시를 추방하고, 아기가 물에 빠진다.

해결 - 물에 빠진 아기를 구하려다가 손이 붙고, 자기 능력으로 생활한다.

문제상황3 잠재 - 남편이 집에 돌아와 문제2 상황의 전말을 인지한다.

---

상상적 추론은, 그 다이어그램의 변화를 상상하고 관찰하고, 새로운 관계(의도되거나 예상되지 않은)를 도출한다. 이는 자아, 행위, 사회적 관계들의 작용 및 효과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 다이어그램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포함한다.

실현 -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찾아 방황한다.

해결 - 자신과 닮은 아이를 발견하고 아내를 찾아 재회한다.

행위양태, 신체상태, 사회관계는 보다 확고한 구별이나 판단이 가능한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심리 상태는 인격의 심리를 인도하는 사회관습에 깊이 영향받으며, 해석자에 따라 다양한 우연성과 일반성을 심리상태에 부여할 수 있다.<sup>16)</sup> 그러므로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술은 가능성과 필연성이 중층결합된 양식으로 존재한다.<sup>17)</sup>

어떤 인물의 사회적 관계의 다이어그램은 다른 인물의 다이어그램으로 변화, 동화, 매개, 대체된다. 계모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색사와 멀어서, 색사에게 심각한 문제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

16) 인물들의 심신상태, 행위양상, 사회관계 등은, 각 해석습관들이나 개별해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연관, 등치, 도치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계열에 속한 직접적 해석체(표현이 유도-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감각)에 대한 역동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두 계열을 동일하게 놓으면, 두 계열의 기호가 해석에서 교환가능하다. 그러나 해석적 위계가 있다면, 낮은 위치의 계열의 다이어그램들은, 우선되는 계열의 다이어그램에 맞춰 감소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심리를 주목하고, 그에 따라 신체, 사회, 행위 등을 이해하려는 해석습관을 고찰해보자. 신체상태의 변화, 즉 '손 잘림'이나 '손 붙음'을 심리상태로 도치할 수 있다. 심적 발달과정에 연계된 사회관계의 변화가, 손의 절단과 결합, 대화양상, 방향-정착, 부양-의존 등의 여러 양태로 변환된다. 해석자가 심리적 결합을 물리적 결합보다 우선시하는 해석습관으로 나아가면, 물리적 다이어그램들은, 부정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혹은 물리적 분리가 심리적 분리와 동일시되거나, 둘 다 부정될 수도 있다. 동일시될 경우, 둘의 전환은 용이하다. 곧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로 해석되며,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로 해석된다. 둘 다 부정될 경우, 대상 사건이 초월적,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때 해석자의 해석습관이 이야기 다이어그램의 상위에서 그 다이어그램의 작용을 제어하고 있다. 그리고 해석에 따른 다이어그램의 감소성이 클 수 있다. 그 감소성은, 이야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발화자와 해석자의 개입수준과 연동될 수 있다.

17) <색사>에서는 시간보다는 공간적인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시공간적 분리는 심리의 해석에의 영향력이 억제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남편은 몸이 오랫동안 떠나도 색사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길항이 남편에게 엄청난 강도의 문제상황이 된다. 그리고 손이 오랫동안 떠나있어도 다시 붙을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한다. 이것은 색사가 문제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돕고, <색사>의 문제상황(양생養生->친애親愛)과 탐구자(색사->남편)의 전환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성취한다.

야기한다. 계모는 아버지를 자신의 적대적 사회관계에 동화시키려 한다. 아버지는 계모의 기만적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하는 자발적 대행자이다. 즉, 그는 발화자의 기만에 취약한 일방향적-자동적 인지과정을 실행한다. 따라서 계모는 손쉽게 아버지를 가부장적 권력의 인터페이스로 삼아, 부정적인 사회적-물리적 영향을 색시에게 실행한다. 즉, 색시의 손을 절단하고 가정에서 추방하여, 사회적, 신체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계모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매개자인 편지배달부의 편지를 자신의 악의적 편지로 대체한다. 이 교란적 대체에 따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고는 소실되고, 계모의 사고가 시어머니의 활동을 일으키는 효과를 갖는다. 시어머니 자체는 색시와 아기에겐 심적,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존재이다.<sup>18)</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들의 관계다이어그램에 동화되는 행동을 한다. 이에 따라 색시와 남편의 결합을 승인하거나, 아들의 담화를 기만적으로 대체한 계모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색시에게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습관은, 교란하는 개입에 취약한 사회적 인지과정이다. 결국 남편은 색시와 강한 심리적 결합과 장기적인 물리적 분리를 경험한다. 따라서 남편에게 색시와 아기를 찾아야하는 문제상황이 실현된다.

색시는 다양한 관계의 분리나 결합을 경험하지만, 손과 다시 결합할 때, 문제상황이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색시>에서 신체의 해석은, 대체로 손이 중점적이다. ‘손 자름’은 계모(악의와 악담)와 아버지(관습적, 물리적 힘)의 심신적 협동에 의한다. ‘손 붙음’에는, 어머니와의 초자연적인 연결(때로 동물이나 물 등의 매개를 통해)에 의한 수여적 결합

---

18) <색시>에서, 시어머니는 색시에게 우호적이거나(김음진,1983), 주도적으로 며느리로 삼는다(오수영,1982). 다만 김덕순 본(한국13, 478-484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내쫓는다. 그런데 이 각편은 <색시>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계모의 음해와 위협, 아버지의 무능과 폭력, ‘손 잘림-손 붙음’ 등). 색시의 사회적 관계 파괴나, 남편의 탐색은 드러나지만, 한국13이 <색시>에 속한다는 김현선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색시>에 속하지 않더라도, <색시>의 일부 문제상황에 대하여 다른 가능성들(대칭적인 다이어그램과 논리들)을 제시하기에, 총체적으로 <색시>에 대한 해석자의 숙고로 포섭될 수 있다. 이때 시어머니는 <색시>에서의 아버지와 계모의 자질들의 통합체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움,<sup>19)</sup> 결합없음(권수이, 1982),<sup>20)</sup> 특정한 초월적 해석체나 대상이 모호한, 수의적이거나 자생적인 결합<sup>21)</sup> 등이 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손으로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손의 의미와 그 중대성을 알려준다. <색시>에서 대립되는 ‘손 잘림’과 ‘손 붙음’ 상황은, 손을 내미는 행동의 직접적인 귀결이므로, 손을 내미는 두 행동의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여러 계열의 상황적 조건들과 색시의 심리적 성장을 신체의 변화와 연동시키려는 해석습관은, 특히 손 내밀기, 손의 절합, 잘린 손을 대체하는 것과 붙은 손으로 하는 것 등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사회관계나 신체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색시에게 양생養生 문제나 피보호자(아기)의 생존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보호에 의하여 해소될 수도 있다. 이 보호가 장기적이고 긴밀하면, 그 정도만큼 문제상황의 양태가 실현에서 잠재로 역행한다. 그리고 보호가 사라지면 다시 문제상황이 실현된다. 기존 사회관계와 분리되고 손 없는 상황에서, 섭식을 보조하는 남편 및 시어머니와의 분리는 색시-아기의 생존에 위협적

---

19) 오수영(1982)에서는 하늘에서 도운 것으로 발화되고 나서, 색시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도와준 것이라고 가설적으로 추론하는 논증기호(“이거를 푹 잘라질 적에 후루루 날아가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나를 도와줬구나”)가 다시 발화된다. 즉, 이 발화에서는 ‘잘린 손이 후루루 날아가는 현상’을 비롯해, 일련의 초월적인 현상들의 관계를 죽은 어머니의 도움을 나타내는 기호로 추론한다. ‘죽은 어머니의 도움에 따른 손 붙음’은 ‘하늘의 도움’이라는 초월적 해석체로 대표되는 초월적 해석습관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서, 일련의 불가해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가추법적으로 형성된 논리적 해석체이다.

20)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탐구와 다르거나 누락의 오류일 수도 있다. 그렇든 아니든, 이것은 해석자에게 ‘손 붙음’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따라서 신체 계열을 우선시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탐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1)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기술되며, 혹은 어떤 이유나 원인도 없이 갑자기 생기거나 붙는다. 이러한 서술 기호들이 특히, 자율적인 정체성의 성장, 심적인 무능력의 극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보다 열려있는 레마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물 묵는다꼬 업디리께네 아이 참 아가 등터리서 마 쑥 빠졌졌거던. 웅덩이. 그래가 이 아 건진다고 손을 쑥 여이께네 거깃말인지 참말인지 손이 떡 붙었뿌다 말이라.”(김옥련, 1984) “깁 짝 놀라서 손을 내밀어 아를 붙잡을라구 하는데 물 속에서 두 손이 올라와서 부뒀다.”(한국6, 448~450쪽)

이다. 따라서, <색시>에서 신체분리는 사회관계에 따라 문제성의 강도가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계열관계 및 결합맥락의 의미가, 정체성 변화와 문제상황의 해결 탐구와 관련하여 함의가 깊다.

<색시>에서는 신체상태와 사회관계의 급변에 따라, 사는 방식(행위양태)도 전환된다. 그리고 문제적 상황이 실현되거나 해결된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잠재적 문제성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되고, 문제들의 역동적, 최종적 해결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상황이나 이야기의 포괄적 문답과정에 대한 심미적 경험의 강도는, 이야기의 지성적, 논리적 의미로 우리를 유도한다. 특히 손과 색시가 맺는 관계의 의미가 전환되면, 색시를 둘러싼 관계의 다이어그램에서 각 요소의 방향과 관계가 급격히 달라진다. 그러면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생겨나며, 이 다이어그램은 색시와 관계된 인물들의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다이어그램 자체의 가소성, 해석가능성 자체의 불확정성, 그리고 해석자와의 그것들의 관계의 불확정성에 의해서,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색시> 각각의 세부적 이미지의 차이는, 문제적 다이어그램의 변화나, 새로운 문제적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가설적 추리이다. 그러므로 여러 양태의 차이들은, 문제에 대한 숙고활동의 궤적이나 영역을 채우고, 새로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각각의 다이어그램들 간의 유사성을 갖는 관계들의 총체가, 일반적 상위다이어그램이다. 일반적 상위다이어그램은, 가중치 높은 연결점들 간의 긴밀한 관계로 구성된 핵-다이어그램(국지적 연속체)들을 포함한다. 일반적 다이어그램을 통한 추론은, 구체적인 이야기기호들에 새로운 해석을 일으킨다. 이러한 추론은, 핵-다이어그램의 탐구에 대하여, 개별 이야기기호의 탐구들을, 그 핵-탐구의 가능성(잠재)-실현-예정(법칙)이나, 스스로의 과거-현재-미래로서 이해하거나, 핵-탐구의 부정이나 긍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핵-탐구에 대해 새로운 가설, 도출된 연역, 경험적 귀납의 추론적 관

계를 갖는 것으로 고찰한다.

이 고찰은 다시 이야기 전체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변화하는 핵-탐구는 어떤 이야기의 사고(문답과정에 대한 탐구과정)의 조건, 과정, 결과물이다. 그리고 핵-탐구의 재구성은, 기호들과 해석습관에 대한 숙고이다. 숙고 안에서, 문제적인 상황은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관계의 형성을 추론해보는 지점, 혹은 상황과 대상의 의미를 바꾸는 새로운 해석적 전환 지점이다. 이야기를 통한 탐구는, 가능한 문제에서 탐구하여 새로운 관계를 실현해보는 것이다. 즉, 기존의 관계에서 주체를 분리하여, 다시 확장되고 새롭고 발전한 관계로 구성해보는 것이다. 각 상황들은 해석자에게 있어 일종의 실험, 다이어그램적 추론이 일어나는 도해를 포함한 장(field)이 되며, 해석의 방향이나 대상을 이야기를 통한 탐구에 제공한다.

## 2. 실용주의적 해석

*\*상황1. 친 어머니가 죽고 계모가 들어와 색시를 미워한다. 색시가 아이를 낙태했다는 계모의 모함을 받는다. 이를 믿은 아버지에 게 손이 잘리고 집에서 쫓겨난다.*

친어머니가 포함된 색시의 가족은 친밀한 3원적 관계이다. 그런데 장자남성을 중심으로 자기조직화되는 사회관계는, 성리학적 해석습관에 의해 시작되고 일반화된 사회적 기호작용의 패턴(관습)이다. 그 안에서 피보호되는 어린 딸(색시)은 관계의 탐구 및 재구성이나, 관계유지를 위한 창조적 노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 가부장적 관계에 참여하는 여성의 죽음으로 관계가 깨어지면, 아버지의 재가에 따라 새로운 여성이 관계에 들어오게 된다. 친모의 자식을 증오하는 계모의 도입은, 증오하는 이원적 관계들의 결합상황-잠재적 문제상황을 구성한다. 이는 상황 3에서의 색시를 중심으로 남편을 끌어들이는 사랑하는 3원적 관계의

조직화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계모의 상징적 의미에 따른 자질(친생관계를 강조하는 해석습관)로서 ‘수양딸을 미워할 가능성’은 <색시>에서 충만하게 실현된다. 이 자질은 아버지와 계모의 친밀한 결합관계, 혹은 계모의 담화기호에 대한 아버지의 사고의 동화에 의하여, 아버지에게 공유된다. 이때의 아버지는 계모와 도상적, 법칙적(‘딸을 미워함’, 혹은 딸의 처벌에 대한 윤리적 법칙기호를 공유하는) 연결관계를 갖는다. 이제 적대적인 결합관계는, 딸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를 파괴하여, 딸을 무력하고 고립된 개체로 하강시킨다. 친밀한 실제 사회관계가 고립관계로 퇴보된 것이며, 이제 사회관계는 그저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색시는 신체결손에 따라 무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스스로 탐구하고 재구성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생존이 위험한 문제상황 하에 있다. 만약 여기에서 <색시>가 중단된다면,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관계변형의 파괴적인 결과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반성시키는 효과를 전달한다. 해석자가 문제성을 느끼는 효과적, 역동적 해석체가 생성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파괴적 관계변형은, 사회관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해석습관이 강한 이들의 자아와 생존에 중대한 악영향을 가한다. 친밀관계 안에서 적대관계가 형성되면서 친밀관계가 내파되는 것은, 한 인격에게 불안, 공포, 무력감, 분노, 배신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황 1의 후반이나 상황2의 초반에서 생존에의 위협이라는 더 강력한 결과가 된다.

색시는 생활력이 강하고, 베를 짜고 의복을 수선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문제상황은, 능력의 원천적 결여나 심리적 무능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이야기들에서는, 계모가 시키는 여러 굵은일을 잘 해결해낸다. 그러므로 색시는 강인한 인내심과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색시는 여러 측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며, 손이 잘려서 문제에 빠진 것일 뿐이다. 다만 색시는 부당한 권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탁월하게 자기변호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무능력하거나, 미숙

한 정신의 처녀가 성장한다는 도식적 해석은, 한국의 <색시>에 한해서 설득력이 적다. 그 해석은 ‘손 붙음’ 이전의 모든 상태를 미숙한 상태로 간주하여 단계적 성장도식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혹은 손을 잘린 후의 무능력이나 약함을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손의 부재가 손으로 하는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증첩된 상태를 성장도식에 따라 속단하거나, 어떤 기호를 이야기의 기호들의 연결망에서 고립시켜 속단하는 것이다. 실용주의적 해석은, 활동의 양태(능동/수동)의 구분과, 사회습관(인물의 관계의 패턴)의 유지 및 재구성을 연관시킨다. 그리고 그 연관에 따라 색시의 의미를 숙고한다. ‘손 잘림’에서 색시가 작두에 손을 내미는 습관은, 계모의 해석에 대한 아버지의 비지성적 승인(즉, 계모의 적대적 논리에의 동화)과 연관된 부당한 권위의 행사에 따라, 손이 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손 잘림’은 아버지의 전반적인 판단능력 및 가정 속 생활습관들에 문제제기한다. 또한 손이 있는 색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만족스러운 가계사정을 유지하는, 유능하고 강인한 인물이다. 그러면 색시는 문제적 상황들 자체를 전복시킬 잠재성이 충분히 있다.<sup>22)</sup>

이 상황에 대한 해석자의 정서기호로는, 억압하고 괴롭히는 계모에 대한 분노, 전도유망하고 유능한 상태에서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색시에 대한 동정심, 색시의 상실감에 대한 공감, 그리고 아버지의 아둔함에 대한 답답함이나, 부당하고 가혹한 처벌행위에 대한 분노 등이 유발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 정서들은 계모와 아버지의 사회적 기호작용에

---

22) 그러한 가능성은 단순히 상상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김현선·김희선(2022)이 채순화(1959)의 구연본 <배나무 배조주뿔>에 대해 논의하듯이, 탐험의 시작이자 새로운 자기의 재구성을 위한 고난들일 수도 있다: “계모의 부정적인 음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스스로 잘라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요점이다”(17), “이 각편에서는 스스로 손을 자르고 위대한 탐험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18쪽) “오히려 느슨한 관계를 통하여 아이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한다.”(22쪽) 김현선, 김희선, 「제주 민담 <손 없는 색시>의 심층심리학적 해석」, 『탐라문화』70, 2022.

대한 비판적 논리의 구성을 유도한다. <색시>는 악의적인 계모의 위험성, 가부장의 일방적 권력, 인지 및 소통능력의 부재<sup>23)</sup>등에 문제성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유도된 판단은 사회관계와 습관의 재구성으로 이어진다. 색시와 동화된 해석자는, 계모의 음모와 아버지의 무능력과 폭력에 대처할 행위들의 습관과 믿음을 위한 탐구로 인도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치와 기능에 관련되거나 몰입하는 사람들은, 재혼으로 시작될 가정생활의 방식, 가족과의 소통방식이나 가정상황의 파악능력 등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다. 그 고민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행위의 실천들과 해석습관의 재구성을 요청한다. 그것은 맹목적인 강력한 권위를 피하기 위한 자아통제, 폭넓은 정보를 깊이있게 고찰하기 위한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습관, 악의적인 논리에 대한 비판능력, 정보접근성을 위한 능동적 인지행위와 진실한 정보를 얻기 위한 친절과 배려 등이 될 것이다.

죽은 어머니가, 색시에게 일종의 신성성을 보이며 초월적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초월적 해석습관 하에서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이야기 속 사실, 색시의 추리적 담화, 발화자의 추리적 논평 등을 통하여 ‘어머니의 도움’이라는 초월적 해석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강한 물리적 분리와 강한 심리적 결합의 관계양태가 갖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손이 분리된 물리적 상태를 거스르고, 손이 붙는 결과는 심리에 만족스러운 결과들이며, 물리와 모순되는 초월적 결과들이다. 이는 <색시>의 다이어그램 추론에서, 심리의 추론을 유도하는 기호들이 갖는 높은 중요성을 나타낸다.

*\*상황2.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간다. 색시가 아기를 낳는다. 계모의 음해*

23) 이러한 것은 김덕순 본(한국11, 468-472쪽)의 결말에서 가장 선명하게 인물-탐구자(아버지)의 반성적인 발화기호로 표현된다: “이 때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 이 기개(지조)도 없는 사내야, 까치가 왜 자네의 눈알과 귀를 물고 갔는지 아는가? 아버지가 대답했다. : “그것은 내가 눈은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후처의 거짓된 소리를 고지곧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한국11, 472쪽)

에 따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색시가 시댁에서 쫓겨난다.

손이 없을 때, 색시는 손이 매개하는 다음 행위로 이행하지 못하는 당혹스러움과 무력함에 마주친다. 손의 습관은, 색시를 손이 활용되는 활동으로 인도한다. 그 활동들의 효과들이 일련의 증개를 통해 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의 습관이 있되, 정작 손이 없는 색시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통해, 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성취하려는 탐구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굶주려 배를 따먹을 때, 입이 손을 대체한다. 손을 잘리면, 환경 및 다른 주체와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다소 억제된다.<sup>24)</sup> 심신과 행위양태의 복합적인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능동성을 보충하거나 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남편에 의존하여 생존하며, 이에 따라 남편의 손이, 색시의 부재하는 손을 대체하게 된다. 이제 색시는, 우호적인 타자들의 손의 의미가, 자신의 손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상황1에서의 문제는 남편과의 거리가 좁혀짐을 통해서 사회적인

---

24) 이다감은 손의 의미에 대한 실용주의적 해석을 보인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한 손을 들어올린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표현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도 손을 통해 움켜쥐는다. 누군가 내 몸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올 때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경계를 설정하고 밀어낸다.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원하는 글을 쓸 때, 몸과 마음에서 욕구가 올라 올 때 그것을 현실화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30쪽)

그런데 손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인간의 일부로서 욕망이나 행동과 연관된 것이다. <색시>에서 계모의 계략에 따른 배앓이를 통해 색시가 무력해지는 과정이나, 색시의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의한 활동과정을 볼 수 있다. 그 과정들은 <색시>의 주요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색시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와 전체 신체다이어그램과 작용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면 민감성, 가용성, 활력성, 매체성 및 다른 매체와의 연결성을 갖는, 상호작용의 중요한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의 손의 실용주의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다감,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여성 심리 이해」, 『한국심리학회지:여성』24, 2019.

로 해결된다. 이는 일종의 문제상황의 사회적 봉합(사회적 해결상황)이다. 사회관계가 변화하여 소실되거나, 일련의 왜곡과정을 거쳐 적대적 효과를 내면, 사회적 해결상황이 다시 기존 문제상황으로 퇴보할 수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사회관계로 대체되어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제 색시는 대체적인 손의 의미는 변화하거나, 영향력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상황2의 문제적 잠재상황이 된다. 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신의 시공간성과 매개경로의 복잡성에 따른 정보의 왜곡가능성의 증대의 문제에 의하여 증명된다. 소통의 시공간적 거리는 통신매체들(편지와 배달부)을 통해서 좁혀진다. 그러나 장기간의 매개과정 속에서 배달부의 보안의식의 부재나, 편지의 대체가능성에 의하여, 소통과정이 개입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그 편지의 모든 의미나 내용들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적대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 모든 이와 안정적인 친밀관계나 무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적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보의 왜곡가능성이 적대자의 전달경로 개입에 의하여 정보왜곡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문제는 시공간의 거리를 직접 좁히거나, 매개단계를 줄여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혹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연관되거나 공유된 기호를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를 결정할 만한 도상기호나 지표기호를 제시할 수 있다. 혹은 해석습관을 공유하는 해석자에게 기호의 해석을 한정하는 암호(상징기호)의 공유에 의하여, 다른 매개자나 해석자의 조작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편지배달부는 적대자의 기만적인 기호의 조작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소통참여자를 한정하거나, 해석과 해석자를 한정하는 소통행위의 제어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시어머니나 남편의 무책임함이나 잘못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강박적 인지의 부담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색시>에서 남편은

‘남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색시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다르다.<sup>25)</sup> 그리고 남편은, 색시를 숨겨서 잘 보살피는 기지와 사랑, 과거를 급제하는 유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색시와 아이를 모함하는 편지를 읽고도 어머니에게 일단 색시를 데리고 있으라는 내용을 보내는 관용, 인내, 사랑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면, 상황3에서의 남편의 문제상황이나 상황2에서의 남편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남편의 분리와 아기의 탄생 간의 결합의 문제가 있다. 아기의 탄생은 남편과 색시라는 두 기호의 결합과 그로 인한 아기의 생산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3원적 관계를 해석에 도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남편의 부재-아이의 태어남은, 비윤리적으로 평가되는 3원적 관계를 해석에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색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면, 이 의심은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낳거나, 믿음 혹은 의심의 배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시어머니는 계모의 발화와 색시를 추방하는 행동의 중개자이며, 문제상황의 촉매자이다. 시어머니는 색시와 남편의 관계에 개입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의사에 종속된 판단이나 추방 결정을 한다. 전달된 기호에 대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어떤 해석체로 중개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진정한 중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왜곡된 기호(남편으로 가장한 계모-발신자와 거짓된 의사표현)에 따라, 색시의 사회적 보호를 중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자율적인 판단과, 서로에 대한 신뢰, 정신적 거리의 유지 등에 관련하여 그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에 관련된 의미들을 숙고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는 색시보다는 시어머니에 관련하여 진정한 중개자가 될 것,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것,<sup>26)</sup> ‘의심’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관계의 파탄을 막

---

25) 황소령(2023)은 남편을 열린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여성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면에 주목해야 한다”(141쪽) “자신의 기득권을 접어두고 여주인공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자이다. 부부로서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수직적 가부장제의 위계에 맞서는 존재”(141쪽)이다.  
황소령, 「동아시아 <손 없는 색시> 설화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41쪽.

는 ‘믿음’을 적절히 형성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윤리적 3원적 관계로의 해석이나, 3원적 관계에 대한 강박적, 맹목적인 확인은, 상호신뢰관계의 소통적 해석체를 해체한다. 즉, 상대가 가진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거나, 자신이 가진 신뢰가 깨졌다는 것으로 상대에게 해석될 수 있다.

*\*상황3. 아기가 물에 빠진다. 손을 되찾고 아기를 구한 뒤 자립한다.  
남편이 사회적 위계를 포기하고 자립한 가족과의 결합을 추구한다. 아이를 통해 남편이 색시를 찾는다.*

상황 2에서의 문제들은 색시가 손을 되찾으면서 해결된다. 먼저 사회적 분리와 신체 분리가 중첩된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임시해결이, 신체 결합과 사회적 분리 상태로 변환되었다. 이때 사회적 분리는 색시의 문제상황이라기보다 남편의 문제상황으로 대두된다. 색시에게는 피보호자-아기를 구하는, 신체 결합(‘손 붙음’)이 문제이다. 이제 ‘손 붙음’은, 보호자의 습관이 구성되는 포괄적 과정에 포함된 어떤 급격한 임계점이자, 손 있는 보호자로서의 습관이 재구성되는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색시가 완전히 보호자인 것도, 보호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우선 색시는 아기가 물에 빠질 가능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옆드려 물을 먹는다. 그러므로 색시는 보호자로서의 습관이 완비된 상태가 아니지만 부주의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보호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색시는 물에 빠진 아기를 구하려 한다. 이것은 분명히 보호자의 습관이다. 그러므

---

26) 시어머니는 편지에 표현된 내용(색시를 쫓아내라는 계모의 화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 의견을 가진다. 그러나 결국 기존의 관습적 제약이나 해석습관에 따라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옳은 의견을 억압하고 배제하게 된다. 이는 결혼의 당사자인 아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해석습관에 얽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색시를 쫓아내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문제상황을 겪는다. 이러한 총체적인 중개의 진정한 3원성의 파괴 때문에, 결국 아들의 데리고 있으라는 의견(시어머니 자신의 의견과 유사한)과 정반대인 편지내용(계모의 악의적인 지향적 해석체)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력적 해석체로 실행하는 비극적 상황이 일어난다.

로 ‘손 잘림’ 이후의 보호받는 습관들에서, ‘손 붙음’ 이후에 즉시 아기를 구하고, 보호자로서의 삶의 습관을 정립해나가는 것은, 그 개별장면 자체로서 색시가 부족하다거나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손 잘림’의 의미들은 ‘손 붙음’의 의미들과 연관되어 있고, ‘손 붙음’의 의미들은 이후에 손으로 색시가 무엇을 해나가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손이 없을 때에도 색시는 아기에 대하여 보호자이다. 색시는 어떻게든 아기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 없는 보호자의 습관 및 능력과 손 있는 보호자의 습관 및 능력이 다르며, 계속해서 습관을 구성해가는 중에, 기존에 있었던 능력이 복원된 것일 뿐이다. 색시가 아이를 구하려 손을 내미는 것(누군가를 부르거나 뛰어들어 입으로 구하려한다거나 하지 않고)은, 색시에게 손의 습관이 여전히 잠재되어있거나, 계속 실현되는 와중에 손의 부재라는 조건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표현된 개별적인 활력적 해석체(행동)에 대하여, 일반적인 논리적 해석체(습관)를 추론하는 것이다.<sup>27)</sup> ‘손 붙음’은 아기와 물리적 분리(장기화될 가능성 높은)를 해결하려는 마음상태와 연결되어 일어난다. 어떤 망설임도 없다는 것은, 색시가 스스로의 정체(아기와 관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상태임을 보여준다. 그 확고한 믿음이 순간적으로 얻어졌든, 아니든, 색시는 이제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해석은, ‘손 잘림’과 ‘손 붙음’의 이전과 이후에서 발견되는, 색시의 능동적 행위양태를 중시하고 색시의 성질을 일관적으로 보는 해석이다.<sup>28)</sup>

27) ‘손 붙음’과 그 이후의 주체적이고 활력적이고 즐거운 모습들은, 무력해지고 괴로웠던 이미지에 윤색된 색시의 개념을 해석자에게 복원한다. 손이 붙어도, 손이 잘린 것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손 붙음’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의 의미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 붙음’에서, 물에 빠진 아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은 권위에 순응하는 자기억제와는 다른 것이다. 무력해진 상황들에서 타인에게 보호받는 습관에 매몰되지 않은 것이며, 보호자로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혹은 재구성된 사랑하는 습관에 의한 것이며, 피보호자와 함께 할 이후의 삶으로 인도하는 믿음과 습관의 완비이다.

28) 김음전(1983)이 대표적이다. 김음전 본(한국3, 415-429쪽)이 제공하는 아이디어들은, <색시>의 문제들과 의미들에 대한 숙고를 풍부하게 한다. 즉, 김음전(1983)에서는

색시가 ‘손 붙음’ 이전에 계속 손이 잘려 있었다는 것은, ‘손 붙음’에서의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손 잘림’ 이후에 사회관계가 이미 손을 대체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가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색시의 문제가 잠재상황에 있었다. 색시의 실수에 의하여 아기가 물에 빠지는 상황은, <색시> 안에서 손의 부재에 잠재된 위험이 가장 문제적으로 실현되는 상황, 즉 손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대체도 예상되지 않는 비극적 상황이다. 비극적 문제상황은 인물기호의 과오過誤행위가 포함되며, 자아비판적인 해석습관을 유도하는 특수한 문제상황이다. 이 상황은 문제의 억제나 제거(잠재성의 유지나 잠재성을 파괴)나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들을 도덕적 자아에 유도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색시나 탐구자는 보호에 관련한 감정과 논리를 배우고, 아기와의 관계에 적합한 믿음과 습관을 탐구할 것이다.

색시와 색시-아기 관계는, 이전부터 남편의 지향점이자, 그의 사회적 존재를 성립시키는 관계망이다. 따라서 색시와 분리될 경우, 남편은 색시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는 과거급제를 해도 벼슬길로 가지 않고, 재혼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색시-아기와의 관계에 의하여, 자기 존재를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색시-아기를 찾을 때까지, 그는 사회적 존재가 분열된 고통스런 상태이다. 물론 이 문제의 실현 및 해결은 다양하다.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오수영, 1982, 권수이, 1982 등), 빠르고 우연하게 찾을 경우엔 덜 문제적이다. 남편이 아내를 오래 찾아다니며, 그 탐색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할 경우, 문제가 강렬하다(김옥련, 1984, 채순화, 1959 등).

이 문제상황에서 남편은 색시와의 만남의 매개자로 성장한 아이에게서, 부부에 대한 답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색시-아기 관계는 안정적이

---

‘손 붙음’ 직후에 색시가 ‘나도 인제 어디든지 가마 인제 산다’(425쪽)고 생각한다. 색시에 대한 김음전의 해석은 이러하다: “인제 그 사램이 본래 손, 없어도 크기 되고 있어도 크기 될 사람인데.”(429쪽)

다. 남편과 만나서 기뻐하는 것과 별개로, 색시와 아기는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소실된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한 습관, 즉 사회적 위치를 향한 욕망과 가족 관계의 해석적 위계의 습관을 재구성하는 탐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내와 아이를 찾는 방법을 찾아내는 탐구와, 그 방법을 활용하는 탐색과정을 오랫동안 시행한다. 그래야 아내나 아이를 마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족에게서 떨어진 남편에게, 가족의 상황은 언제나 해석가능성으로 남는다. 그 상황에 대한 서술은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다. 그는 오랫동안 헤맨 뒤에야 문제상황을 해결했다. 그리고 세 명의 관계가 충만하게 형성될 해결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재구성하고, 그 관계를 위하여 생각하고 활동한다.

#### IV. 결론

실용주의적 해석은 <색시>들의 차이를 포괄적인 윤리적, 논리적 숙고 안에 종합시킨다. 즉, 개별 이야기 속 활동들의 효과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들의 포괄적 의미망에 재적용한다. 그리고 이야기들의 문제상황들에 몰입한 탐구자들에게 일어나는 고민들과 창조적 방안들을, 이야기의 의미해석에 활용한다. 이러한 해석습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되어왔다. 다만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거나, 이론적 맥락이 간접적이었다.<sup>29)</sup> 그래서 본고는 퍼스의 기호학과 실용주의에 직접 기초하며, 해석 습관을 분명히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색시>의 각 상황에 대한 몰입과 고뇌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느낌들은,

29) 필자는, 바보의 인지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문제삼고, 사회적 인지과정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바보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는지를, 예코기호학적으로 분석 및 제안하였다. 바보이야기와, 그 속의 사회적 인지과정의 의미들은, 분명히 그 과정의 참여자들의 행동 및 가능한 행동경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지환, 「예코의 해석기호학과 바보담:바보의 인지실패 과정에 대한 탐구」, 『이론으로 서사 읽기』, 송효섭 외, 역락, 2020, 204-245쪽.

기호학이 제공하는 지성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통하여 의미해석에 연결될 수 있다. 어떤 문제나 탐구를 다룬 이야기의 실용주의적 해석에서는, 특정한 느낌과 지성의 활동이 통합되어 있다. 이는 서사의 화용론적 이해를 위한 명확한 지침 중의 하나를 제공한다. 그리고 탐구자는 이야기와 인물의 매개를 통하여 새로운 활동경험을 자기 습관의 총체에 재적용할 수 있다. 탐구자가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면, 그는 ‘나’ 기호가 위치한 이야기들 또한 탐구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탐구자는 자아를 재구성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활동경로를 개척해볼 수 있다. 이는 삶에 새로운 창조적 논리의 진화가능성을 도입한다. 이처럼 이야기의 실용주의적 해석은 윤리학, 심리학을 비롯한 규범과학들에 서사기호학적 탐구경로들을 제공한다.

실용주의적 해석습관의 재구성은, 신동훈의 ‘서사적 화두’의 아이디어<sup>30)</sup>를 발전시키고자하는 마음에 힘입었다. 화두는 참구와 별개가 아니다. 참구는 관찰, 수행, 대화들<sup>31)</sup>과 별개가 아니다. 문제도問題圖를 통한 탐구과정에서, 탐구자는 명상과 지혜를 통한 깨달음으로 간다. 그리고 깨달음에 따라 활동하는 해석습관의 재구성으로 간다.

30) 신동훈은 화두를 참구하는 순간, 일종의 프래그머티시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물이 있는데도 머슴살이하는 신바닥이의 문제를 파악하고(67쪽), “호랑이 같은 세상에의 대처”(67쪽)로서 “내면적 힘에 의한 해결”(69쪽), 즉, “주름진 내면을 활짝 펼침으로써 존재적 도약과 비상을 이루는 일”(70쪽)로 해석하고 있다.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6, 2017, 67-69쪽.

31) 이 대화는 “그러나, 말로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 어떤 강연과도 같이, 도해들diagrams과 실험들experiments로 설명하는 것이다”(CP:6.461)

## 참고문헌

- 김현선, 김희선, 「제주 민담 <손 없는 색시>의 심층심리학적 해석」, 『탐라문화』 70, 2022, 5~43쪽.
- 서은아, 「<손 없는 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국학연구』 12, 2008, 356~366쪽.
-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46, 2017, 35~83쪽.
- 이다감,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여성 심리 이해」,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24, 2019, 21~45쪽.
- 이윤희, 「퍼스의 다이어그램과 내러티브 알레고리의 매체상호성」, 『말과 그림사 이-다이어그램의 상호매체성』, 세미오시스연구센터, HUiNE, 2018, 89~148쪽.
- 이지환, 「एको의 해석기호학과 바보담:바보의 인지실패 과정에 대한 탐구」, 『이론으로 서사 읽기』, 송효섭 외, 역락, 2020, 205~245쪽.
- 황소령, 「동아시아 <손 없는 색시> 설화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김현선,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서, 2009.
- 시모어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0.
- 제임스 야콥 리츨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HUiNE, 2013.
- Peirce, Charles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eds.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vols.1-6); Arthur W. Burks (vols.7-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
- \_\_\_\_\_,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1893-1913), Peirce Edition Project (e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Charles S. Peirce's Letters to Lady Welby*, Irwin C. Lieb ed., New Haven: Whitlock's, Inc, 1953.

## Semiotic Approaches to Inquiry Process through Story: About AT 706 <The Bride without Hands>

Lee, Ji-Hwan

This inquiry discovered the general Question-Answer process that we could infer from story by semiotic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 habit of pragmaticism. And this inquiry tried to have full peircean view on inquiries of relations of stories as self-controlled deliberation. In other words, that is some diagrammatic reasoning with general diagram of network of story signs. This works would be appropriate to some types of stories related to problems or inquiries.

AT 706 <The Maiden without Hands> in Korea are materials that appropriate to this work, so that, provides the understanding about the qualities of problem posing and inquiry of story. These stories suggests several low-level problems with temporal solutions(occasionally transcendental) that can belong to comprehensive problem solving process. By virtue of pragmaticism, this inquiry reorganized the process of constitution of individuals states in the flexible network of environment and society in the story as a succession of simulation of Question-Answer structure. Unlike other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maidens's development diagram and mental states, this study considers plural relations of narrative constituents and other characters(husband, mother-in-law, etc). Finally, this inquiry shows the maiden as active inquirer in coherent personality through pragmaticism interpretation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hands, habits, and behaviors.

Keywords : Semiotics, Pragmaticism, QA process, Story as inquiry, The Maiden without Hands

투고일: 2023. 07. 16./ 심사일: 2023. 08. 13./ 심사완료일: 2023. 08. 14.